

참회·성명·조사·기자회견...

“자정하자” 공감속 방법론 모색

‘박물관 의혹’ 국장2명 권고사직, 신도단체 ‘비상회의’ 제안

조계종의 ‘자정 바람’이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기류를 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구성된 불교중앙 박물관 특별 조사반은 21일 “총무국장장과 재정국장에 대해 직인관리 및 관리 감독 지휘 책임을 물어 21일자로 권고사직(면직) 처리했다”며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호법부에 이관해 추가 조사 및 조사 완결을 지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도 “원장직을 사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적 절차나 답합의 절차들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마무리하고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은 19일 불교신문 광고를 통해 ‘종도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불교중앙 박물관과 관련 “종단차원의 관리 감독 방안까지 꼭 넓은 대책이 수립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장적도)도 19일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공사 조사에 중앙신도회측으로부터 박정만 건축사와 김희욱 회계사를 추천받았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성관 효립)는 1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정규율의 강화와 법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종단혁신을 촉구한다”며 “자정의 대의아래 종립 동국학원에 관한 의혹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는 18일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최근 종단 일부의 각종 의혹사건은 “일반사회에서도 부끄러운 의혹과 도덕적 불감증이 승가에 침윤된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는 21일 ▲성역 없

는 조사와 책임규명을 통한 참회와 자정 활동 ▲혁신적 교단자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초 마련 ▲승가정신 의 회복 등을 위해 ‘정정교단 수호부패근절 비상회의’를 제안했다. 비상회의는 부처님오신날 직후부터 ‘삼보정재 투명하게’ ‘생활기풍 청정하게’ ‘대종위한 열린운영’ 등을 모토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비상회의는 또 “불교중앙박물관, 동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이 4월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참회정진기도를 하고 있다. 참회정진기도는 1주일간 진행된다. 사진=박재완 기자

국대, 불국사 건 등에 대해 관련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단체와 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종무원들의 모임인 원우회(회장 양

진수는 22일 “조사 결과의 발표 이후 이번 사건과 관련 일반직 종무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언사가 나타나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동우 기자

전통사찰 신·증축 허용된다

정부 경제정책 조정회의서 결정

2006년 상반기부터 전통사찰에서 불사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4월 22일 한덕수 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국 907개 전통사찰 경내에서의 건물 신·증축과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등 ‘공익용 신지’에서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허용하기로 의결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상정하는 한편,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는 대로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불교환경단체들은 사찰 내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유철주 기자

봉원사 관련 재판 무기한 연기 ‘합의’

조계·태고종 대책위 “결론 날때까지...”

조계종과 태고종이 대화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계류중인 신촌 봉원사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조계종 태고종 봉원사 대책위원회는 4월 21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실에 열린 제1차 전체회의 결과 “본 대화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현재 계류중인 봉원사 재판을 대화가 원만한 결론을 보기까지 양측의 합의에 무기한 연기한다”라고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또 대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 실무위원으로 각 4명씩 8인으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정후·법안·장적·동진 스님이 태

고종은 구해·일운·월해·법현 스님이 실무위원으로 선정됐다.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한국불교와 사회의 평화를 위해 조계·태고양 종단간 대화를 불교 교유의 사고와 방법론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행한다”와 “다음 회의는 실무위원회 진행과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한다”에 합의했다. 오늘 회의에는 조계종측 원택(위원장)·정후·무관·법안(간사)·동진·종수 스님과 태고종측 자월(위원장)·구해·해공·일운·월해·백운·법현·법현(간사) 스님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선수행 지침서 ‘간화선’ 고불식

5월3일 조계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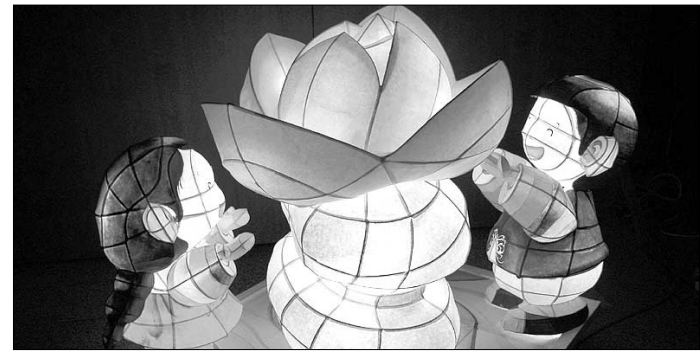
조계종 ‘간화선수행지침서 편찬위원회(위원장 해국)와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화랑)는 간화선 수행을 위한 지침서 <간화선> 발간 기념 고불식을 5월 3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한다. 당대 종단 선지식들의 감수를 통해 발간되는 <간화선>은 2002년 11월 조계종 수행체계 연구회출판 2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조계종

수행의 길이라는 부제목을 단 <간화선>은 선수행을 시작하는 출·재가자를 대상으로 간화선의 기초, 실천, 깨달음과 그 이후 과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화선>은 산문형식의 서술로 초심자들도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고불식에는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편집위원 역할을 맡았던 선원 수좌 스님 등이 참석한다. 조종수 기자

법장 스님 등 자이툰부대 방문 계획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한다. 법장 스님은 교구부사 주지스님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등 30여

명과 함께 자이툰 부대를 방문, 이라크 치안유지와 재건을 위해 파송된 국군장병 노고를 치하한다. 방문에서는 장병들을 위한 격려인사와 격려 위문품 전달식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개인 창작등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성민제씨의 ‘부처님께’.

성민제씨 전통등 경연 최우수상

봉축위 심사결과 발표

한마음선원회와 성민제씨가 불기 2549년 등 경연대회 단체 행진등 부문과 개인 창작등 부문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제6회 등 경연대회 심사 결과, 단체 행진등 부문 최우수상에 한마음선원, 우수상에 능인선원, 특선에 봉은사·진각종, 입선에 조계사가 각각 선정됐다고 4월 19일 밝혔다. 개인 창작등 부문 최우수상은 성민제씨의 ‘부처님께’, 우수상은 이

유홍씨의 ‘산사의 봄’, 특선에 강동일씨의 ‘대가람 연못’과 이보람씨의 ‘생사 고해를 넘어서’, 입선에 안정훈씨의 ‘만법귀일’ 박경애씨의 ‘도깨비 외당’ 박순애씨의 ‘목어등’ 권진순씨의 ‘연꽃등’ 김현수씨의 ‘청자신수’가 각각 선정됐다. 단체 행진등 부문 시상식은 5월 8일 동대문 운동장에서 열리는 어울림마당에서, 개인 창작등 부문 시상식은 5월 6일 봉은사에서 열리는 전통등 전시회 개막식에서 각각 개최된다. 남동우 기자

東大특위 활동 개시

동국대 진상조사특위는 4월 19일 중앙종회 2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또 특위 조사를 담당할 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장 토진 스님과 장적 도안 정도 본각 스님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한편 동국대특위 소위원회는 4월 29일 오후 2시 동국대 재단 전 기자회견 박도근씨를 불러 동국대의 중앙대 필동병원 매입과 관련한 검찰고발내용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조종수 기자

중앙종회 직능직보결성관 스님 당선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직능직(법제) 중앙종회의원에 수원 포교당 주지 성관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성관 스님은 1972년 사미계, 76년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이다. 남동우 기자

새 교황 선출 축하 메시지 발표

조계종이 제265대 교황 베네딕토 16세 선출 축하메시지를 4월 20일 발표했다. 조계종은 축하메시지에서 “라칭거 추기경이 일찌감치 새로운 교황에 선출된 것은 그만큼 가톨릭 내에서 신앙이 두터움을 반영한 것이자 세계평화에 대한 온 인류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축하했다. 조계종은 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지도력을 발휘해 인류의 갈등과 고통 해결에,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적인 역할을 다해 주리라 기대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에도 많은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170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대표전화(02)737-8881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ho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승풍진작과 종단기강 확립을 위한 담화

새봄을 맞이하여 봉축불사에 정진하는 모든 종도와 2천만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종단은 제31대 총무원 3년차를 맞이하여, 종단발전과 불교중흥을 위해 조지한 여러 가지 기초 작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단적 숙원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됨으로써 교단과 나라 안팎에 그 성과를 회향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종도들의 화합입니다. 더불어 승가위의를 바로 세우고 종단 권위와 기강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총무원 호법부는 내외의 어떠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종단화합을 모든 사업의 대 전제로 삼아 모든 중무집행을 해나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특정한 비위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종단화합이라는 근본 기초의 이면에 그간 청산되지 않았던 구태들이 다시금 발호하고, 승가위의와 종단의 권위 및 기강을 해하는 일부의 사례들이 점증하는 한편,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왜곡되어진 여론이 없지 않은 바, 종단 없는 종단발전과 종도권익을 향상하게 하기 위해 승풍진작과 종단기강을 확립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이는 오늘날 제방에서 수행정진과 정법홍포에 전심을 다하는 많은 종도들께서 종단과 호법부에 엄중히 요청하는 사항인 것 또한 밝힙니다.

이에 호법부에서는 종헌종범에 의거하여 승가위의를 바르게 세우고 승풍을 작흥기 위한 조치로서, 승려로서의 근본적인 分限 위반행위, 폭언/악담/추어 및 양설로 화합을 깨는 행위, 상습적인 유랑객승 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속가 유승행위 등 수행자로서의 근본 가치와 사회의 도덕적 통념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에 대하여 엄히 그 책임을 묻는 한편, 종단권위와 기강의 확립조치로서는 근거 없는 소문의 남발 및 투서를 일삼는 행위, 종단 내부의 시정절차 없이 사회기관에 제소하는 등의 행위, 중명을 도용하거나 미등록사설사암을 운영하는 행위, 종단과 사찰제산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종단의 합법적인 중무명령을 이행치 않는 행위, 중무와 관련한 불만으로 중요 중무원에게 부당한 언사를 행하는 행위, 중무와 관련한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도 종헌종범이 정하는 최대의 기준으로 엄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승풍진작 및 종단기강확립을 위한 방침을 보다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이와 관련한 호법활동 현황에 대하여는 매월 정례적으로 종도들 앞에 그 달의 업무현황을 발표해 드릴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도들로부터 보다 나은 호법지침을 수렴해 나가고자 하오니 제방의 원로대덕스님들을 비롯하여 종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불기 2549(2005)년 4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종수